

## 자유로운 책읽기를 위해 어느새 몸에 밴 별난 독서습관

황상익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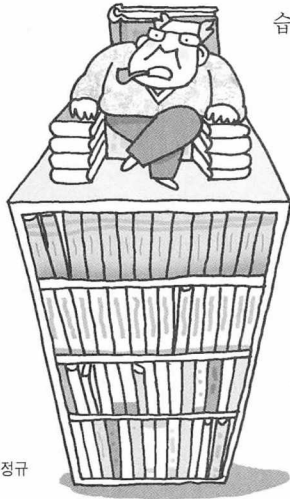
언제부터인가 나는 드러누워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반듯하게 누워서, 그러다가 자세가 불편해지면 모로 누워, 책을 든 팔이 아픈 면 옆드려 보다가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식이다. 대개는 폭신하고 포근한 침대 위에서 그러지만, 딱딱하고 서늘한 기운이 그리워지면 방바닥으로 내려가 비슷한 '짓거리'를 반복한다. 그러다 잠이 들어 가족들의 악의 없는 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자세를 지도하는 교사라면 질색할 나쁜 습관이 어느새가 몸에 밴 것이다.

어떤 연유로 그런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됐는지는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낮에 직장에서 근엄하게(?) 줄곧 책상 앞에 앉아서, 또 강단에 서서 일하는 것에 대한 내 몸의 소리없는 반작용과 저항일까? 사실은 저녁이나 휴일에 집에서 누워서 책을 보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게으름과 대책 없는 잠일 따위로 낮과 주중에 못다 한 숙제를 하느라고 책상 앞에, 정확히는 컴퓨터 앞에 공손하고 꼴꼴이 앉아 한편으로는 자료와 책을 뒤지며 자판을 두드리고 간간이 남는 손으로는 담배와 '얼음' (남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선이 다 돼가는 지금도 어린이가 같이 날얼음 먹기를 좋아해 특히 '작업' 중에는 한시간에 두어 컵 분량의 얼음을 해치운다)을 열심히 입에 공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업과 관련된 이런 '책 들치기'도 독서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심리적·신체적으로 작업이 주는 압박과 부담감에서 해방된 독서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직업상 늘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훌륭한 독서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실제 공간적으로 얼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 때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책읽기를 즐기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침대와 방바닥과 더불어 나의 책읽기 장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출근 때의 버스와 퇴근 때의 지하철이다. 시간도 길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책읽기에 그리 적절한 곳은 아니어서 신문과 잡지 '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자투리 독서하기에는 화장실에 못지 않다. 특히 독서 분량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읽은 내용을 되새기고 음미하기에 버스 좌석 만한 곳도 별로 없다는 것이 내 경험이 말해 주는 바다. 단 버스 속 라디오 소리에 귀가 현혹되지 않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나도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직업상 그런 기회가 적지 않은 편이다. 나는 여행할 때면 가능한 한 혼자서 하려 한다.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목적지에 오가는 동안은 못되게도(!) 적당한 핑계를 대 따로 차를 타거나, 동승하더라도 대개 그들과 떨어진 맨 뒷자리에 앉곤 한다. 이것은 물론 사교적이지 못한 내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 터이지만, 그밖에도 그 시간을 나름대로 활용하려는 강박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리고 그 활용이란 대개는 그동안 밀린 독서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일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운 책읽기를 얘기했지만 독서는 여행이라는 해방된 공간에서조차 여전히 억압으로 작용한다. 나에게, 어쩌면 책읽기와 글쓰기를 주업으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흔히 독서가 해방이 아닌 억압과 강박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들만큼 독서를 하지 못하면, 그리하여 '지식인' 사회의 대화에서 뒤처지면 무지하다고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사실 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새로운 노래나 유희와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래 집단에서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악착같이 유행을 좇는다는 것처럼 말이다.

내 자신의 독서 행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독서는 즐겁고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믿는다. 또 그런 만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긴다. 즐거운 독서라고 해서 책이 쉬워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리라. 이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쉬운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닌 사실과 상통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움이 따르더라도 기쁘고 즐거이 그것을 감당한다는 뜻일 터이다.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자신의 신조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책과 글을 대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충격적이며 또 그런 느낌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 그런 과정은 물론 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닐 터이다. 사실, 세상 현실은 책이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생생하다. 그리고 책 외에도 세상의 실상과 이치를 전해 주는 매체와 수단은 다양하며 나름의 장점이 있다.

미군의 폭격으로 불타는 마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거벗은 몸으로 울부짖으며 달아나는 소녀를 찍은 사진 한장이 베트남 전쟁에 관한 열권의 책보다 전쟁의 실상과 본질을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고속버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한그루와 꽃 한송이가 그 버스 속에서 웅크린 채 읽는, 자연의 변화를 묘사한 최고의 책들보다 자연계의 모습과 이치를 더욱 생생하게 전해 주기도 한다. 요컨대 책은 사색과 성찰을 위한 자료일 따름이지, '독서 일만권'이라고 해도 진정한 자기

반성과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장식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책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될 나쁜 버릇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빈번히 저지르는 일일 터이건만, 책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내 보기에 명백한 오류가 몇 차례 눈에 띄면 그 글과 책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내가 잘 모르는 나머지 부분에도 잘못이 많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런 내 모습을 곰곰이 뜯어볼 때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책과 저자에게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잘못을 발견함으로써 내 지적 자만심(?)을 충족시키려는 못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그 동안 여러 잡지와 책들의 교열과 편집에 관여해온 이력 탓이라는 생각과 함께.

책과 관련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태도 가운데 한가지는 장서(藏書)를 자랑하는 것이다. 고가의 희귀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디에 얼마만큼 기증했다(그 동안 찍지 않았던 개인 도장을 친절히도 일일이 찍어서) 따위 말이다. 나는 가지고 있는 책이 분량으로나 내용으로나 보잘 것 없어 '장서'라고 할 만하지도 않다. 따라서 내가 '장서 자랑'을 혐오하는 것은 없는 사람의 질투심 탓인지도 모른다. 나는 고서상처럼 책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나 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그런 물질적 태도를 나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물며 그 장서를 자신만이 이용하는 태도야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중한 책들을 모은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칭송받을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는 방편이 될 때 그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전자신문과 더불어 전자책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활자책의 형태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렇게 책의 모습은 바뀔지 몰라도 지식과 지혜의 창고이자 전달체로서의 본성은 쉽사리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책과 독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통한 인간의 성찰과 거듭남에 있다는 점은 새천년에도 여전할 것이다.●

### 희랍 철학 입문

WK.C. 거스리 지음/박종현 옮김/224면/7,000원

희랍 철학의 권위자인 박종현 교수가 번역한 희랍 철학 입문서. 고전이 전공 아닌 학부 수 강생들을 위한 강의안을 재집필한 것으로 평이한 서술을 통해 희랍 철학자들의 주장의 요지와 철학사적 큰 흐름에 접할 수 있도록 피하고 있으며, 분량은 그리 길지 않지만 희랍 철학의 진수들로 가득 차 있다.

### 반유론 半有論

이영호 지음/144면/5,500원

반유(半有)란 무(無)와 합일하고 있는 유를 말한다. 이 책은 존재 논리로서의 운동(생성·소멸·변화·이동)을 설명하고 공간과 시간을 근원에서 해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관념론과 유물론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씌어진 책이다.

### 영원한 현존

L. 라벨 지음/최창성·이상호 옮김/208면/7,000원

이 책은 삶과 명상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하는 책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쾌락만을 찾고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는 모습에 대한 성찰을 도와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현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어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http://www.seokwangsa.co.kr>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